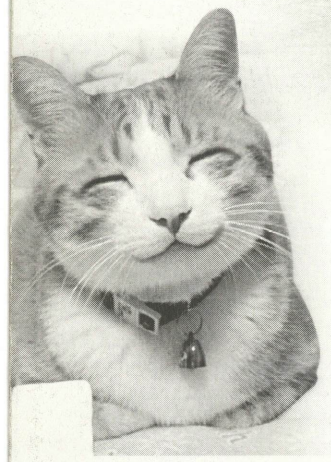




투표합시다!



11월 26, 27일은
투표일입니다.
꼭! 꼭! 꼭! 잊지말고
투표하세요!!

선보 메일 happyfem@yonsei.ac.kr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남수진 · 권박미숙**과 함께하는 사람들

총여학생회 정후보

김남수진 - 샘 (인문계열 4학년)

문과대 여성주의모임 <모반> 활동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활동
제4회, 제6회 여성연대한판 기획단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 기획단
제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기획단

총여학생회 부후보

권박미숙 - 열 (사회계열 3학년)

정치경제학 연구회 목화회 활동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활동
15대 총여학생회 집행부
제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기획단
제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기획단



박 제 된 선택 을 거 부 하 다 - 행 복 한 여 성 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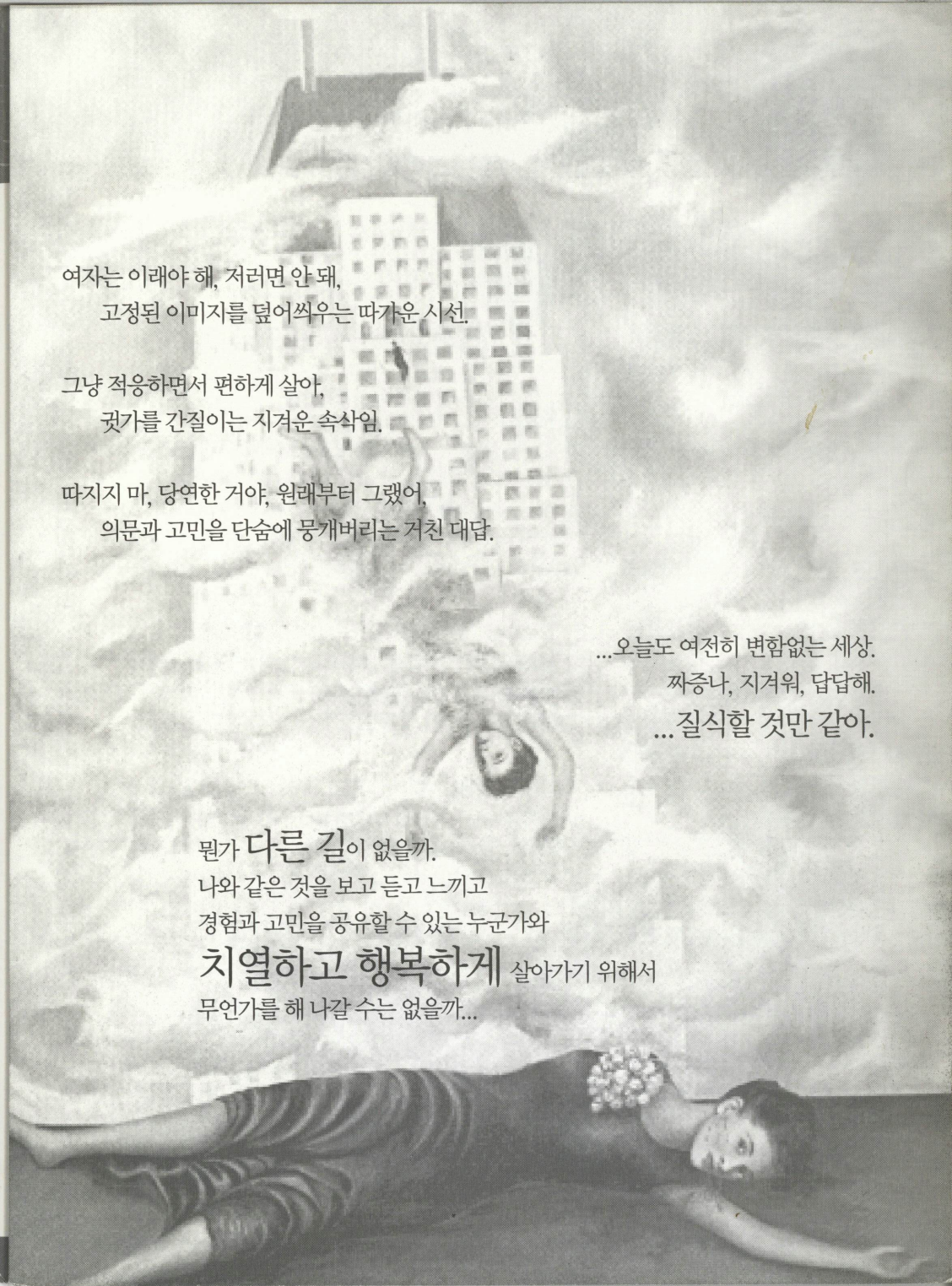
여자는 이래야 해, 저러면 안 돼,
고정된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따가운 시선.

그냥 적응하면서 편하게 살아,
꽃가를 간질이는 지겨운 속삭임.

따지지 마, 당연한 거야, 원래부터 그랬어,
의문과 고민을 단숨에 뭉개버리는 거친 대답.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세상.
짜증나, 지겨워, 답답해.
...질식할 것만 같아.

뭔가 다른 길이 없을까.
나와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와
치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 나갈 수는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는 행복하다.

박 제 된 선택 을 거부 하 다 - 행 복 한 여 성 주 의



함께해요~ 행복한 여성주의!

하나, 여성주의를 함께 즐기는 자리. 재미있는 여성주의 문화제 마련

섹슈얼리티 행사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인 것이다? NO! 여성의 입으로 섹슈얼리티 제대로 말하기
여성제 여성들의 축제.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둘, 女友에게 보내는 행복한 선물

여학생 수첩 발행 여성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예쁜' 여학생 수첩 발행은 2004년에도 계속됩니다.

셋,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와 조우하다

여학생휴게실에 게시판 설치 여휴에서 여성주의 총여 만나기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총여학생회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겠습니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 베이스도 확충하겠습니다.

넷, 여성의 언어. 나누고 쌓기

여자들의 방 각종 고민 상담과 Q&A 게시판, 일상 나누기 - 여성들만의 공감대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겠습니다.

새학기 맞이 여성학 학교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언어로 말해보고, 강연을 들으며 내공 다지기.

여성주의 매체 발행 여성주의 매체에는 여성의 언어가 담겨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 현안들을 여성의 언어로 해석하고 전하는 여성주의 매체 발행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함께 만드는 여성주의

'나만 혼자 예민한 걸까..' 여성주의의 감수성을 가진 이들은 과. 반. 동아리에서 혹은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숨은 여성주의자들이 만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발화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위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은 계속된다

하나,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반성폭력 학칙.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둘,

반성폭력 자치 규약 제정 운동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기초로, 새터 기간만이 아닌, 학내 모든 자치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지켜져야 할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의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셋,

성폭력 사건 접수 및 해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총여학생회에 신고합시다. 총여학생회에서 피해자 지지와 사건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넷,

수업 중 성폭력적 발언 없애기 수업 중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신고 접수, 문제제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캠퍼스 비상전화설치 학내 어느 곳도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발신전용 비상 전화를 학내 곳곳에 설치하겠습니다.



낮선 이야기? 나의 이야기!

하나,

성매매 성매매 교양 학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센터 새움터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학내에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퍼트리고, 성매매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가겠습니다.

둘,

여성 노동 38 여성의 날은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대투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8을 맞아 학내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셋,

단대별 여성교수 비율 2003년 교육투쟁 협약서에는 단대별 여성교수 비율을 20%이상으로 할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시행은 불투명합니다. 여성 교수 비율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